

보도시점 2026. 6. 30.(화) 14:00 배포 2026. 6. 30.(화) 13:30

## 「WGBI 상시점검 및 투자유치 추진단」 제8차 회의 개최

재정경제부는 황순관 국고실장 주재로 '26. 6. 30.(화) 11:00 정부서울청사에서 「WGBI 상시점검 및 투자유치 추진단\*」 제8차 회의를 개최하였다. 이번 회의에서 관계기관들은 WGBI 편입 개시 이후 외국인 자금 유입 동향 등을 논의하였다.

\* 참석기관: 재정경제부(반장: 국고실장), 금융위원회, 한국은행, 금융감독원, 예탁결제원

WGBI 편입개시 이후 외국인 국고채 순매수는 체결기준 37.3조원(3.30일~6.26일), 결제기준 30.7조원(4.1일~6.26일)\*으로, 최근 대외 불확실성 지속, 주요국 통화정책 기조 변화 등에 따른 국고채 금리 변동성 확대에도 불구하고 WGBI 편입 개시 이후 4~6월에 외국인 국고채 순매수가 지속되며, 지난해 같은 기간('25. 4~6월 +28.0조원, 결제기준)에 비해 순매수가 확대\*\*되었다.

\* 채권의 경우 거래체결일과 결제일 간 시차가 존재(당일~최대 30일)하여, 거래 체결 기준과 결제 기준간 차이 발생

\*\* 외국인 국고채 순매수(조원): (체결기준) 5월 +13.7, 6월 +13.5 (결제기준) 5월 +10.2, 6월 +11.7

특히 6월의 경우 대규모 국고채 만기상환( $\Delta$ 7.9조원)에도 불구하고, 일본계 자금이 지속 유입\*되는 가운데, 중앙은행, 투자은행, 국제기구 등 다양한 유형의 투자자들의 순투자가 지속되며 순유입 흐름\*\*이 이어지고 있는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.

\* 일본계 투자자 국고채 순매수(조원): (4월) 3.1 (5월) 2.9 (6월) 3.2  
일본계 투자자 국고채 보유잔액(조원): (3월말) 0.9 → (6.26일) 10.1

\*\* 외국인 국고채 순유입(=순매수-만기상환, 조원, 결제기준):  
(1월) 5.8 (2월) 7.9 (3월)  $\Delta$ 7.1 (4월) 8.8 (5월) 10.2 (6월) 3.8

또한, 이날 회의에서는 유로클리어\* 서비스 개시 이후 외국 투자자들로부터 제기된 애로 및 건의사항을 공유하고, 관련 제도 개선방안도 논의되었다.

\* 글로벌 국제예탁결제기관(ICSD)으로, 거래하려는 국가마다 계좌가 없어도 국경 간 채권·증권·파생상품 등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관

황 국고실장은 “WGBI 편입 이후 지난 4~5월에 이어 6월에도 외국인 자금이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다”고 평가하며, “여전히 국내 금융시장을 둘러싼 대내외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어, 하반기에도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외국인 자금 유입 동향을 면밀히 살펴봐야 할 것”이라고 밝혔다. 아울러 “이러한 어려운 시장 여건 속에서도 우리 국채시장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”고 강조했다.

정부는 앞으로도 「WGBI 상시점검 및 투자유치 추진단」을 중심으로 외국인 자금유입 동향을 지속 점검하고, 외국인 자금유입 확대를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사항을 적극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.

재정경제부 <총괄>	국고실 국채시장과	책임자	과 장	이재우 (044-215-5140)
		담당자	사무관	김상규 (kimsg39@korea.kr)
금융위원회	금융정책국 금융시장분석과	책임자	과 장	이인욱 (02-2100-2856)
		담당자	사무관	김경찬 (kimkchant@korea.kr)
한국은행	국제국 자본이동분석팀	책임자	팀 장	최재혁 (02-759-5773)
		담당자	과 장	임준혁 (jh.lim@bok.or.kr)
금융감독원	자본시장감독국 증권거래감독팀	책임자	팀 장	박세혁 (02-3145-7590)
		담당자	조사역	박기택 (pkt@fss.or.kr)
한국예탁결제원	글로벌본부 글로벌금융부	책임자	부 장	최순돈 (051-519-1815)
		담당자	팀 장	최극진 (kjchoi@ksd.or.kr)

